

지 상 범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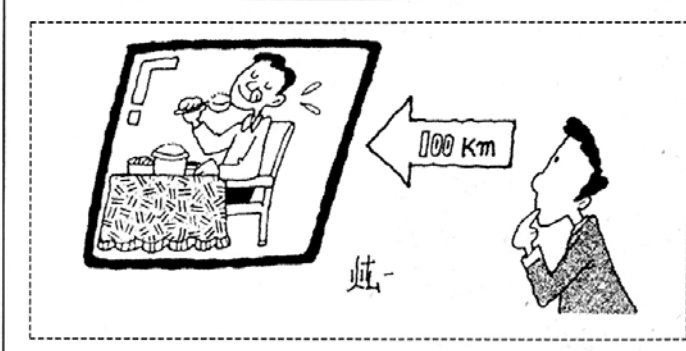
해탈 성취하는 씨앗

“한알의 씨앗을 심으면 한 말의 열매 견고 한 마리 고기 방생하면 무수한 생명 번식”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인과법의 도리는 신본주의(神本主義)와 운명론 및 우연론의 벽을 넘어 인간의 자유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게 함으로써 도덕과 윤리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가장 합리적인 철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물었다. “여래의 신통력은 불가사의 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악인으로 하여금 현세에 나쁜 과보를 받게하여 날마다 조심하여 감히 악행을 짓지 못하게 하지 않으시며, 선인은 현세에 좋은 과보를 받게하여 날마다 더욱 선행에 힘쓰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에 상당한 과보를 응당 받는다고 말하면 서도 두아(無我)를 설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순이 아닌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삼세를 연결하는 실체가 있다면 이 몸을 버리고 새로운 과보를 얻기도 힘들 뿐 아니라 본질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중생이 부처로 전환한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실체가 있는 육도의 운회라면 사람이 짐승 탈을 쓰고 짐승이 사람 탈을 쓴 격이 되는 우화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이나 생명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겠지만 중생이 중생으로서의 실체를 고집한다면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성을 고집하지 않고 인연따라 새롭게 생성 변화하는 무상의 도리에 의하



상대론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론이나 일반 상대론을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물리학에서 상대론의 역사는 적어도 갈릴레이에게까지 올라가게 된다. 갈릴레이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고전 물리학에서 상대론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 일상 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보도록 하자. 우리가 어떤 물체의 속도를 관측한다고 하자. 정지하여 있는 채로 어떤 나무를 관찰한다면 그 나무의 속도는 물론 0 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나무의 속도가 0 이라는 관찰 영역이 과연 보편적인 것일 수 있는가? 시속 100km의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같은 나무를 관찰한다면 그는 그 나무가 시속 -100km의 속도를 가졌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물체의 속도라는 물리량은 그 물리량을 관측하는 사람의 운동 상태가 규정되지 않고서는 전혀 무

각각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55 양행진 상대론

인과는 삼세순환 ... 현재 바로 보고 싶없는 정진을 출가·재가 생활 달라도 한 길가는 수레의 두바퀴

의 도리에서 본다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한 생애 또는 한 번의 성립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로 연속되는 삼세인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업인이 있어도 현세에 과보를 받지 않으면 내세에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현세에 과보가 나타났으나 업인을 미래의 업인이 되어 단절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과관계는 한 생애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때로는 과거의 인(因)과 현재의 과(果)라는 긴 세월을 두고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인과관계는 성립의 과정이 짧을 수 있지만 총보(總報)는 과거의 업인이 현재의 결과를 낳고 현재의 결과가 미래의 업인이 되어 단절될 수 없이 연결되는 순환의 역사를 계속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과법의 이러한 도리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해결하고 한 생애에서 마감되는 인생이 아니라 삼세를 순환하는 인생임을 강조하여 부단한 수행정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인과는 헛되지 않고 빛깔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입이 쓰도록 가르칠 뿐이다. 듣고도 믿지 않으면 어찌 도리가 없는 일이다. 또 물었다. “영가대사가 말하기를 ‘깨달으면 업장이 본래 공하다’고 하였습니다. 공하다면 어찌 인과와 빛깔을 따위가 있었습니까?” “그대가 지금 깨달음을 얻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응당 목은 빛을 알아야 한다.” 인과법의 도리는 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라는 인과를 낳게 되어 일상생활의 도덕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미래의 행복을 보장하는 법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간적인 도리 뿐이고 우리들이 추구하는 출세간적 도란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는 생사해탈에 있는 것입니다.

여 무엇으로도 가능한 공의 상태에 있는 것이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에 수행의 힘을 빌어 발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무아의 상태에서 인과가 성립됨을 <잡아함경>에서는 “업의 과보는 있지만 그것을 짓는 자는 없다”라고 극히 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본질이 공인데도 불구하고 중생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허구적인 관념에 불과한 것이며 가이(假我)를 자아라고 집착하는 허망된 관념이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구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아를 증득(證得)하는 것이 해탈로 향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불교를 불교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무아설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인과법을 중심으로 말하야 때문에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무아상에서 인과법이 성립되고 있음을 살펴보았지만 자아를 가장한 무아라고

“인과법 굳게 믿어 육바라밀 실천하고 열가지 선업 생활화하면 正道는 저절로 열려”

일체사물 서로 끝없이 의존하며 존재 마음에 그려지는 세계는 인식따라 변화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정의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듯 관측자와 관측 대상 사이에 상대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고전적 상대론이다. 물리 이론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었으나, 이것은 단순히 물리 이론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직접 체험 가능한 것이다. 기차 안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이를 이해할 수 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이 관찰할 때 자신의 수저 안에 들어 있는 밥알은 정지해 있다. 그러나 기차 밖에 있는 사람이 관찰한다면 그 밥알은 시속 100km로 달려 간다. 기차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밥알이 100km로 날아온다면 식사같은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물리 현상을 추상적으로 이론화하여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다. 그러므로 어떤 물체가 정지하여 있는 가 아니면 움직이는가 하는 질문도 또한 이를 관측하는 관찰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규정해야만 비로소 가능해진다. 다만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나무가 정지하여 있고 기차 안의 밥알이 100km로 날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지구 위에

Advertisement for 'Anjungwon' (安重院) featuring a portrait of An Jungwon and text about his life and teachings. Title: 見利思義見危授命. Text: 옥중 안의사의 간수였던 일본 헌병이 존경과 참치로 바라본 인간 안중근. 약사암의 -하스님이 번역하여 국내 처음 공개되는 자료들! 놀라운 장면들!!

Advertisement for 'Haeun's Debt' (행운의부적) by Yunnam Myeom. Title: 신비한부적의세계. Text: 내가 만드는 행운의부적. 운남 염음.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행운은 이 책안에 있습니다. 행운을 잡고 싶은 모든 분들께!

Advertisement for 'Seok-yong San' (석용산스님) featuring a portrait of the monk and text about a meeting. Title: 청년불자를 위한 열린마음·열린세상 석용산스님 초청 대법회. Text: 불기 2540년 2월 4일 (일) 오후 3시 KBS 부산홀. 1부 축하공연 2부 석용산스님 법문. 주최: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문의: (051) 853-9082. 후원: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부산불교신도회, 부산불교실업인회, 불교연맹회, 불교부산방송, 불교교육회관 공덕원, 대한불교신문, 불교신문, 법보신문, 주간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무료 입장.